

켄텍, 패밀리 기업과 에너지 혁신 생태계 구축

117개 기업 참여 산학협력 플랫폼 발대
난제 해결·신사업 아이템 공동 발굴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산학협력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켄텍은 18일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켄텍 패밀리(KENTECH Family) 기업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전력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117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플랫폼은 형식적 산학협력을 넘어 대학과 기업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기업 현장

의 난제를 대학 연구진과 함께 해결하고, 신사업 아이템까지 공동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켄텍은 이를 위해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전력망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원자핵에너지 등 6대 핵심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기술 이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Naju Global Energy Forum·NGEF) 2025’와 연계해 개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18일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켄텍 패밀리(KENTECH Family) 기업 발대식’을 열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산학협력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돼 의미를 더했다.

국내외 에너지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켄텍 패밀리 기업 제도의 산학협력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행사에서는 패밀리 기업 인증서 수여

식과 함께 ‘K-그리드 인제·창업 밸리 구축사업’,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협력 과제도 공력 플랫폼’이라며 “이번 출범을 계기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혁신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켄텍

패밀리 기업제도는 형식적인 회원제가 아니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해답을 찾는 문제 해결형 협력 플랫폼”이라며 “이번 출범을 계기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혁신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수출기업 통상환경 대응 지원
한전KPS, KOTRA와 설명회

한전KPS가 대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한전KPS는 최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분야 수출 중소기업 10곳과 광주·전남 소재 대미 수출기업 10곳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KOTRA와 광주본부세관, 관세사 등 전문가들은 강연과 개별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첨단산단 근로자 건강 행진다
산인공 광주본부, 검진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건강 증진과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 위해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자 무료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작업환경개선과 안전·보건문화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혈당, 혈압 등 근로자 기초건강지표 검진을 비롯해 공장 내 작업환경 위험요소 개선 상담을 전문가 매칭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무료 건강검진은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산단공 광주본부 청사 1층에서 진행된다. 작업환경관리(10월), 직무 스트레스 예방(11월), 직업트라우마 해소(12월) 등 다양한 테마로 입주기업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작업환경관리를 주제로 작업환경의 학전문의를 초빙해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정례화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지원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금호타이어, 기아 ‘PV5’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전기 SUV·픽업트럭 전용
‘크루젠 EV HP71’ 장착

금호타이어는 기아 브랜드 최초의 목적 기반모빌리티(PBV) ‘더 기아 PV5’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PV5는 전동화 전용 상용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빠른 충전 성능과 저상 플로어,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PV5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CRUGEN) EV HP71’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및 픽업트럭 전기차 특화 제품으로, 수출용 차량에 주로 공급된다. 전기차에서 요구하는 연료 효율성과 주행·마모 성능, 승차감을 고려해 낮은 회전저항, 고하중 지지, 저소음, 고효율에 따른 순간 반응속도에 대응 가능한 성능을 확보했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전무)은 “자동차의 개념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목적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설계되고 운용되는 확장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PBV 시장은 확대



‘더 기아 PV5’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PV5 외에도 타스만, EV3, EV4, EV6, EV9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도입

신복위 협약·취약계층 재기 지원 위해 최대 90% 감면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연체된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경제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전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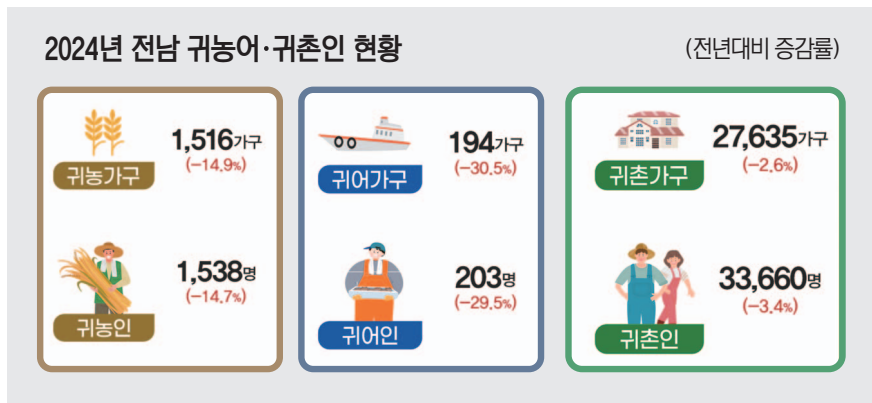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채무로 정상적

인 상황이 어려운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이를 한전에 통보하고, 통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조정안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제한되거나 단절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귀농 인기 시들해졌다...3년째 감소

■호남통계청, 귀농·귀촌인 현황

1966→1516가구 22.8% ↓
귀촌 연령 20대 이하 최다

전남지역 귀농·귀여·귀촌 가구가 3년 연속 감소세를 그쳤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귀촌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의 귀농가구는 151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2022년 2564가구에서 1966가구로 하락전한 뒤 이제 3년 연속(2023년 1781가구) 마이너스다.

같은 기간 가구원 수 역시 2579명→1987명→1803명→1538명으로 줄곧 내려막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5%(562명)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50대(29.3%·451명)다.

시·도별 귀농가구 구성비는 전남이 전국 귀농가구의 18.4%를 차지해 2위였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전남은 1인 가구가 82.8%(1256가구)로 최다를 차지했다.

귀농 전 거주지역 상위 순위를 보면 광주에서 전남으로의 귀농이 36.3%(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전남(18.6%·286명), 경기(15.4%·237명), 서울(14.0%·216명), 인천(5.3%·81명)이다.

전남의 귀여가구의 경우 2021년 383가구를 시작으로 3년 연속(2022년 297가구→2023년 279가구→2024년 194가구) 줄었다. 해당 기간 가구원도 403명에서 20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시도별 구성비는 전남이 전국 귀여가구의 35.0%로 1위였으며, 1인 가구가 78.4%(152가구)를 기록, 압도적으로 많았다.

귀촌가구 역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1년 3만2964가구에서 2024년 2만7635가구로 16.1%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귀농·귀여와 다른 추이를 보였다.

50·60대가 많았던 귀농·귀여와 다르게 귀촌은 20대 이하(23.1%·7784명), 30대(20.9%·7038명)가 많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발장 서겠습니다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제품인증서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제품인증서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 CLT)

제품인증서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